



환영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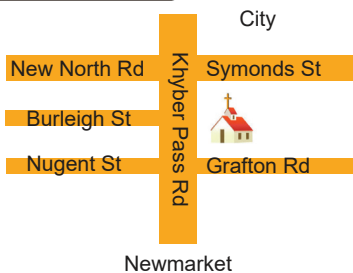
갈보리소식

1. 오늘은 사순절 네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2. 3월 수요일예배 주제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3. 금요 저녁기도회가 오는 11일 (금) 오후 8시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금요 새벽기도회는 없습니다).
4. 2016년 단기선교를 위한 예비모임을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교회에서 갖습니다.
5. 2016년 7월 중에 있을 바누아투와 통가 단기선교에 참여할 성도는 신청 원합니다.(25명, 신청서는 안내위원에게 문의).
6. 각 선교사들과 정기적인 연락을 하며 선교와 기도소식을 정리하여 선교란(주보 3면)을 꾸며 주실 성도는 자원 바랍니다.
7. 작년 성탄축하 감사 예배에 드러진 현금 전액은 아프리카 차드에서 선교하는 양승훈 선교사에게로 송금되어 그 지역 유치원을 1년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8. 2016년도 성경 통독 릴레이 첫번 완주자는 정덕수 장로입니다.
9. 예배 후 각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년초에 세운 계획이 잘 실천되도록 모든 회원들이 뜻을 모읍시다.
10. 지난주 St David's 교회 측과 여러문제를 의논했습니다. 공간부족에 따른 콘테이너 하우스 설치, 교회 표지판 설치,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인 만남 등입니다.
11. 새벽기도가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중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이번 주는 금요 저녁기도회로 인해 없습니다)



갈보리 전교인 성경통독 릴레이: 1회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주일 PM 1:00
- 청년모임 주일 PM 3:00
- 수요일예배 수요일 PM 7:30
-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 아 동 부 주일 PM 1:00
- 중고등부 주일 PM 1:00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 이 태 한
- 부 목사 : 심 창 진
- 부 목사 : 이 성 철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18권 10호

2016년 3월 6일 주일

2016년 표어

기록 (롬12:1)

부흥 (마5:8)

나눔 (잠11:24,25)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1.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2. 교회학교를 일으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3. 선교와 전도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4.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 예배로 부름 히브리서 10:19-20,22

◎ 찬 송 지난 이레 동안에 44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천지에 있는 이름 중 80장

대표기도 박덕철 장로

성경봉독 로마서 5:12-21

찬양대 찬양 주님은 나의 구세주 /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한 사람, 또 한 사람/이태한목사

찬 송 갈보리산 위에 150장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계신 주(1,2절)

◎ 축 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청년 모임

오후 3시

소그룹 나눔과

성경공부

기도 / 조주찬 형제

수요 예배

찬 양 수요 찬양단

기도 김은우 집사

성경봉독 창세기 23:1-6

설교 햇불 언약/

이태한 목사

광고 인도자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99장

주기도 다같이

금주의 기도제목

1. 진리의 영에 붙잡혀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선한 영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2. 예배장소와 교육공간의 부족함이 해소되어 효과적인 교육과 2세들을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3. 금식과 경건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뜻깊은 사순절을 보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선교와 중보기도

이번주는 한국 세계선교협의회가 발표한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을 소개합니다.

전 세계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는 지난해까지 총 171개국, 2만 720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보다 528명이 증가했지만 10년 간 증가폭으로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북음화율 5% 미만의 미전도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교사 절반 이상은 10개국에 집중돼 있어 선교사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7일 선교사 파송 현황을 발표했다. 집계는 교단선교부를 포함, 선교단체 23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노회나 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은 빠져있어 실제 활동중인 선교사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KWMA 한정국 사무총장은 "발표한 수보다 1만명 정도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2011년 2만3331명, 2012년 2만4742명, 2013년 2만5745명, 2014년엔 2만6677명이었다. 매년 1000명 이상씩 증가하다 3년 전부터 증가세가 둔화돼 500명대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증가폭 감소세는 젊은 세대(20~30대)의 지원이 줄었고, 은퇴 선교사가 증가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선교단체에 따라서는 선교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름만 있는 선교사들은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부 단체는 75세 이상 선교사들도 제외했다고 KWMA 관계자는 전했다. 1000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는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와 예장통합, 감리회선교국 등 교단선교부였으며, 인터콥과 바울선교회, TIM, OM선교회 등 선교단체들도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국가에 선교사들이 몰려있는 현상은 여전했다. 10대 파송국가 현황에 따르면 전체 선교사의 절반 이상인 51.6%가 10개국에 집중돼 있었다. 동북아 A국이 가장 많은 4162명의 선교사가 파송됐고 이어 미국 2668명, 필리핀 1672명, 일본 1494명, 인도 1059명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필리핀은 북음화율 15.5%가 넘는 '기독교국가' 임에도 선교사 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동남아시아로 229명이 더 파송됐다. 이는 아시아 지역이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깝고 다양한 종교문화권이 분포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슬람권 지역에도 많이 파송돼 남아시아 94명, 중동 67명, 중앙아시아 59명이었다.

선교사들의 사역 내용으로는 교회개척이 압도적으로 많아 140개국에서 1만1579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자훈련(142개국, 9033명) 캠퍼스(70개국, 2470명) 교육(78개국, 1418명) 순으로 나타났다.

3월 교회일지

금요기도회: 3월 11일 (금요일)
 사순절 5: 3월 13일 (주일)
 종려주일: 3월 20일(주일)
 고난주간: 3월 21-26일 (월-토)
 성금요일 저녁예배: 3월 25일 (금요일, 노회연합)
 부활, 성찬주일: 3월 28일(주일)

3월 예배봉사자

예 배 안 내: 박병민/김현주
 새신자안내: 박혜숙/이정인
 최희숙/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윤경례/박제란
 김명옥/유현남

기도순서

이번주 애찬: 정진택 집사
 다음 주일: 박병민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홍진솔 자매
 3월 16일 수요: 김은희 집사
 3월 16일 애찬: 장연식 집사
 3월 20일 주일: 김순자 권사
 3월 20일 청년부: 권우석 형제